



김아영

Crossings

《돌아와요 부산항에》, 《어느 도시 이야기》
중에서, 조용필이 부른 동명의 원곡
함께 재생, 3채널 비디오, 모노 사운드,
가변크기, 각각 약 00:05:00,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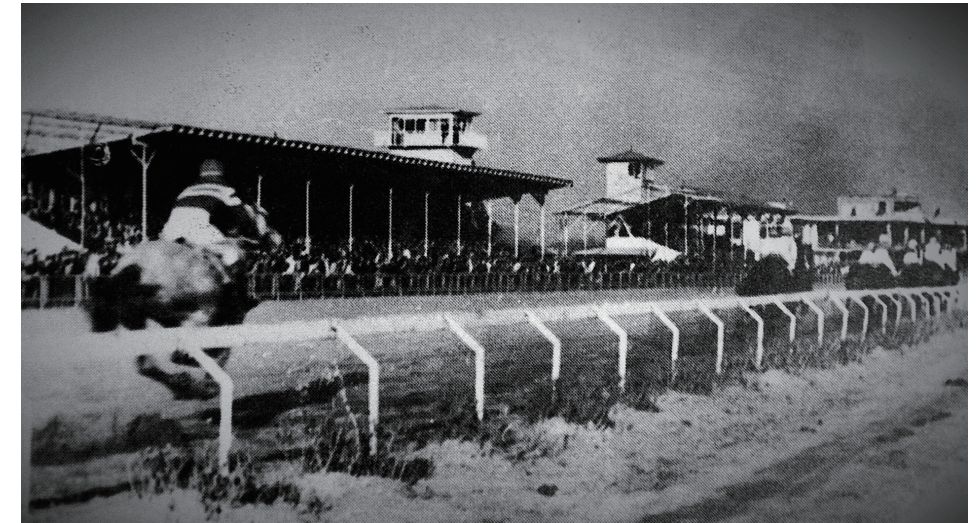
*Please Return to Busan Port from Tales of a
City* (Played with the Original Music with
the same title Sung by Yong-pil Cho),
Three-Channel Video, Mono Sound, Size
Variable, Approx. 00:05:00 Each, 2012



〈모든 북극성 I & II〉, 〈어느 도시 이야기〉
중에서, 단채널 비디오, 스테레오 사운드,
가변크기, 각 00:06:01, 00:08:56, 2010



*Every North Star Part I & II from Tales of a
City*, Single Channel Videos, Stereo Sound, Size
Variable, 00:06:01, 00:08:56, 2010



ure, etc.). An allowance race at Aqueduct (6 furlongs, 2/5 second over track record, defeating Pension Plan, Straight to Paris, etc.). 2nd Royal Poinciana H. (7 furlongs, to Lonetree in new track record time,	stakes winners, including Crowned Prince (champion colt at 2 in England), Majestic Prince, American Native, Son Ange, etc. MR. PROSPECTOR STUD ANALYSIS Mr. Prospector enters stud in 1975. His first foals will arrive in 1976.	Murdie S. (mcr, 1 7/8 miles, 3:21 1/5). ROYAL CONSORT. Winner at 4, \$3,497, 2nd Lieutenant-Governor's H. Stn. CHARGER TOLSON. 4 wins in 2 season, \$10,800. BOLD SEQUENCE. 2 wins at 3, \$8,275. Producer. INVITING. Winner at 2, \$5,305. Dam of stakes winner Without Peer (to 4, 1974). EXEMPLARY. 3 wins to 7, 1974, \$9,650.
--	--	---

1975 FEE: \$7,500 GUARANTEED LIVE FOAL

Owner: Aisco Stables

Standing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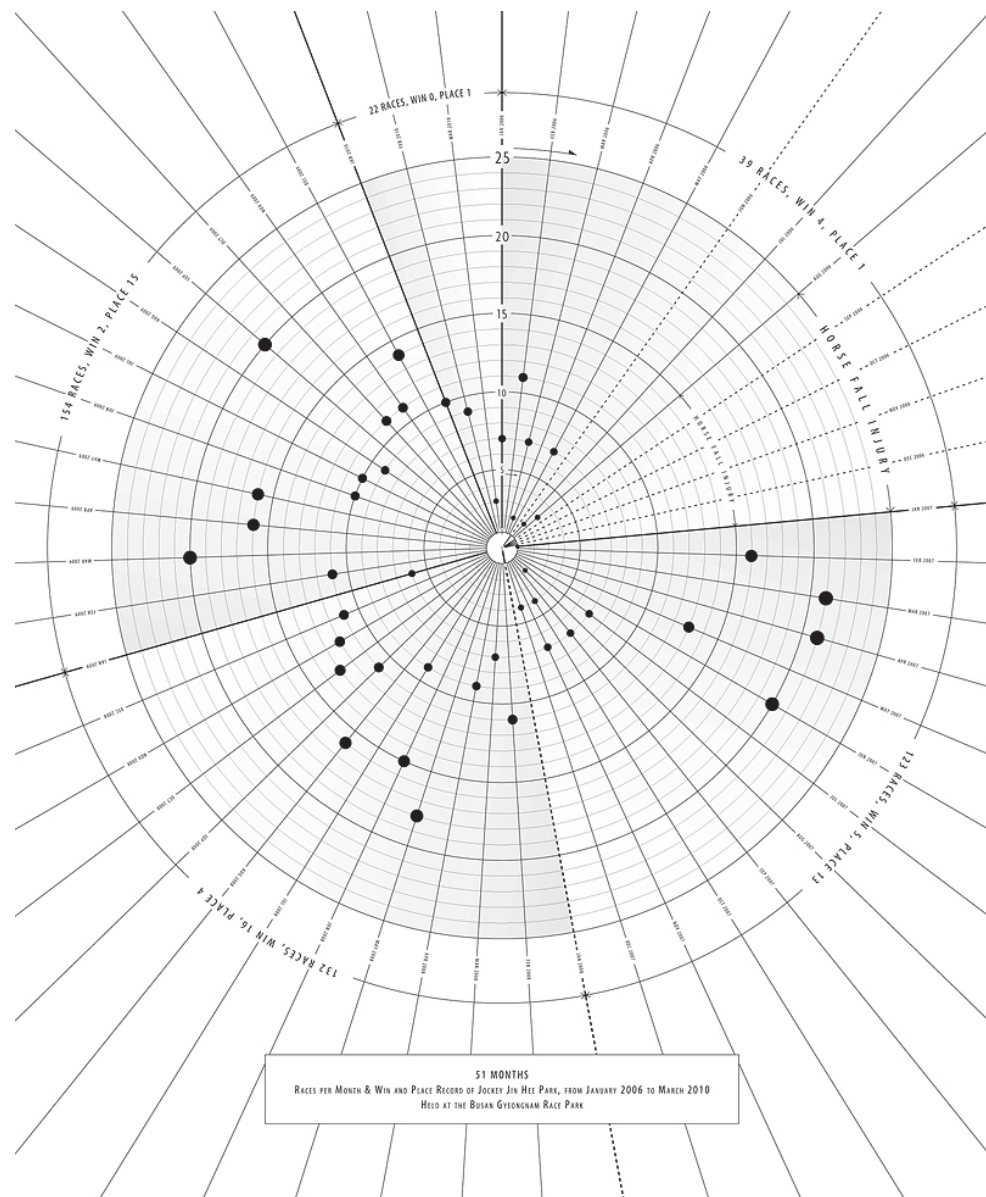
AISCO FARM

Ocala, Florida

Inquiries to Pat Hunter, Aisco Farm, Route 1, Box 103, Ocala, Florida 32670. Phone (904) 237-2333 (office) or 237-2733 (residence).

367

〈51개월〉, «어느 도시 이야기» 중에서,
디지털 프린트, 80×60cm, 2011
51 Months from Tales of a City, Digital Print,
80×60cm, Edition 1/10, 2011



〈등대 1905〉, 다양한 매체 설치,
등대 85×46cm, 탑 167×57×57cm, 2011
Lighthouse 1905, Mixed Media Installation,
Lighthouse 85×46cm, Tower 167×57×57cm,
2011



1

과거의 어떤 사건들은 장소 및 연환과 시환이 명확한 지점에 놓여 있어서, 그에 다시 영향을 미칠 만한 물리적 개입의 여지를 쉽게 내주지 않는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 상상으로나마 그 지점에 존재해 보고자 하는 능동적 행위 앞에서 사건들은 단지 정보의 일람만을 허용하기도 한다. 길어 올리고자 하는 것은 완결된 듯 보이는 상태를 흐트러뜨리고 재구축할 수 있게 해줄 공시성, 즉 그 때 그 지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맥과 지표들이지만, 이를 끌어 오기 위해 단서를 찾는 과정은 살았던 적 없는 그 때 그 장소를 살아내야 하는 일처럼 요원해 보이기도 한다. 마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열람만이 가능해진 정보들처럼 무의미해 보이기도 한다.

2000년 후사이치 페가수스가 켄터키 더비에서 우승해 그의 주인에게 133만 8400달러의 상금을 안겨준 일은 북미지역 경마 팬들 사이에서는 널리 기억되는 사건일 테다. 5년 후, 후사이치 페가수스와 한 살 터울의 배다른 형제였던 페인즈 베이, 일찍이 경마에 큰 재능을 보이지 못해 다섯 살에 은퇴한 이 마필이 암말 레드랜즈를 만났던 2005년의 이벤트는 앞선 사건보다 훨씬 작은 단위의 사람들만이 기억하는, 혹은 누구도 기억할 필요 없을지 모를 사건일 테다. 레드랜즈는 곧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 제주도에 안착했고, 이후 이 사건은 내게 중요해졌다.

이런 일도 있다. 선원들의 종착역이라 여겨진다는 근해선에는 가까운 바다 너머로부터 무역품을 싣고 올 때, 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실려 오기도 한다. 근해선이 부두에 입항하는 금성이 빛나는 새벽 어떤 이들은 두근거리는 맥박을 달래며 세관을 통과하곤 했다. 등탑에서 눈치채기 쉬운 수평선상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배들의 실루엣이 겹치는 배와 배 사이 바다로 부표에 매단 물건을 던진 후, 바다로 내려가 이내 바지선으로 물건을 건져 올리는 과정에서, 이 누군가가 혹시라도 취해 있거나 부주의하면, 배와 배 사이에 끼어 작은 소리도 없이 포말이 되어 사라졌다. 이런 일은 차라리 집단적 기억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그 낱낱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졌을지도 모른다.

1929, 1952, 1988, 2006,... 연관 없어 보이는 과거의 어떤 해들에도 누군가 혹은 무언가는 바다를 가로질렀다. 16번지에서의 개인전을 아우르는 큰 제재들은 항해를 통한 이동과 이송, 각기 다른 바다와 항구들, 한국 근대사가 세계사와 교차하는 지점이다. 전시는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과거의 이벤트들을 재료로 삼는다. 이 이벤트들은 종료된 사건들이므로, 각자가 속한 지점에 물리적 개입의 여지 없이 불박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가?

2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리서치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작업들이 있다. 부산은 한국 최초로 개항된 도시들 중 하나이며 바다 건너 문물이 가장 먼저 흘러 들어오곤 하는 도시, 밀수가 보편화된 곳이자 전쟁의 피난민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도시, 가파른 산과 너른 바다가 더 그런 곳이 있을까 싶을 만큼 가깝게 존재하는 곳으로 갈무리된다.

부산에 관한 두 가지 에피소드는 각각 다채널 영상과 다채널 영상 및 다이어그램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중 다채널 영상 〈모든 북극성 Part I & II — «어느 도시 이야기» 중에서(Every North Star Part I & II from Tales of a City)〉는 〈Part I〉과 〈Part II〉가 상호 보완적인 영상작업이다. 〈Part II〉가 부산경마장에 유일했던 여기수와, 그와 함께 다승을 올린 애마 북극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용병 여기수의 관계를 응시하는 반면, 〈Part I〉은 북극성이라는 말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며 경마산업의 국내 안착과정과, 전쟁 후 경주용 개량마의 수입 과정을 더듬어 엮는다. 언뜻 사회 언저리에 위치한 듯 보이는 경마의 세계에서 반세기 전부터 수입 경주마들이 국내에 자리잡아 온 과정은 한국의 일반적 근대화 과정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그러나 경마는 본래 그 문화가 시작된 곳에서 사행성 도박으로서만 간주되지는 않는데, 경마산업의 국내 안착과정에 있어 그 문화는 함께 유입되지 못했거나 토착화하지 못했다. 다양한 겹의 맥락 아래 발생한 사건의 성격은 부산이라는 공간이 가진 지역적 특성에도 그 원인을 빚지고 있는데, 이 작업은 더 이상 중요성을 지니지 못하고 과거가 된 사건을 공적 기록과 정보들을 통해 바라보고, 사적 내러티브로 구축한다. 서로 방해하거나 연관하며 흐르는 겹겹의 텍스트는 진위를 헤아릴 수 없는 지점을 암시하기도 하며, 공적 기록과 평행하거나 포개어지며 재구성된다. 여기에는 직접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아카이브 영상자료, 기수의 경주기록이나 말의 혈통 대장을 포함한 리서치 자료, 뉴스 헤드라인 등이 사용되었다.

부산에 관한 또 다른 에피소드인 다채널 영상 〈돌아와요 부산항에(Please Return to Busan Port)〉는,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열기와 국가발전예의 낙관이 풍성했던 80년대 말을 배경으로, 부산항에서 밀수 일을 하던 소년의 삶의 편린을 임의로 재구성한다. 한국민 사이에 두루 공유되는 정서 혹은 문화의 일부로 여겨진다고 보이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익숙해서 무감각한 대중가요의 멜로디와 가사는,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과, 밀수에 관한 각종 매체를 통한 자료들과 혼합되어 심상을 구축한다. 작업은 아카이브 영상자료, 로케이션 및 스튜디오 촬영한 재현영상 등의 몽타주를 통해 다채널 비디오로 구현되어 시대

흐름과 미시적 삶이 어떻게 상관하거나 평행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예술품의 의미화 과정에 있어, — 영원히 지연되기는 하지만 — 방점을 찍는 관객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작업들은 하나의 작업이 시공간과 언어, 문화의 궤도를 넘어 초월성 안에 존재할 수 있는지, 예술품과 그 맥락에 있어 번역이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띤 관찰의 매체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차별적이나 연대기적으로는 동일한 시간대에 속한 공간들에서 나타나는 비동시성*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속할 것이며, 이를 전제로, 비동시적 시간대의 근대화를 겪은 관객들이 하나의 작업을 어떤 다른 지점들로 수렴하는가는 무척 흥미로운 부분이다. 예술의 보편성에 대한 의문을 품어 보면서 말이다.

3
사건과 그에 관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남아 회자된다. 회자되지 않는 것들은 점진적으로 더 작은 단위의 사람들 사이의 기억에 남게 되고, 이윽고 사라진다. 도입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완결된 듯 여겨지는 과거 어떤 사건들의 상태는 닫혀 있는 듯 하지만, 열림은 그 닫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영역이 도항(crossing)과 가로지르기(crossing)의 공간일 뿐, 그 안을 속속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망망대해처럼, 어떤 사건들은 접근 불가능하므로 영원한 가능성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그 예술적 가능성의 수로를 여는 것은, 변화의 여지를 스스로 건네지 않는 사건의 물리적 부동성과 접근 불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김아영 (2012)

*
Osborne, P. (1992) *New Left Review*, 1/192, March/April. London: New Left Review. p.75

김아영
(1979년생, 서울)

교육
2009-2010 켈지 컬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 MA 파인아트학과 졸업
2005-2007 런던 컬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BA 사진학과 졸업 (논문 부문 1st Class)
1997-2002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개인전
2012 <크로싱 Crossings>, 16번지, 서울
2012 <PH Express>, Künstlerhaus Bethanien, 베를린, 독일
2010 <미니마 메모리아>, Street Level, 글라스고, 영국
2009 <이케메라>, I-Myu Projects, 런던, 영국
2008 <이케메랄 이케메라>, 스페이스 바바, 서울

단체전
2012 <아트스펙트럼 2012>,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예정]
— <Korean Eye: 에너지와 물질>, Fairmont Bab Al Bahr, 아부다비, 아랍 에미레이트
2011 <Korean Eye: 에너지와 물질>, 국회의사당, 서울; Museum of Arts and Design (MAD), 뉴욕, 미국
— <What Had Happened>, 두산갤러리, 서울
— <Fotografias>, Museum of Modern Art of Rio de Janeiro(MAM), 리우 데 자네이루, 브라질
— <Future Map Prize>, 176/Zabludowicz Collection, 런던, 영국
2010 <New Photography in Korea>, Galerie Paris-Beijing, 파리, 프랑스
— <Summer Exhibition 2010>, Royal Academy of Arts, 런던, 영국
— <Osannolik Digital Festival> in Kulturnatten, 벵세, 스웨덴
— <Ways of Seeing> Part II, I-Myu Projects, 런던, 영국
2009 <서울 국제 사진 페스티벌>, 가든5, 서울
— <Korean Eye 2009: Moon Generation>, Saatchi Gallery, 런던, 영국
— <이륙離陸 Aim High> 중앙미술대전 역대 선정작가 특별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미술시네마: 감각의 몽타주>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2008 <T.Error - Your Fear Is An External Object>, Menupont Galeria, Mucsarnok (Kunsthalle) Budapest, 부다페스트, 헝가리

— <제30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Lateral Thinkers - from the Mind to the Wall>, 다름슈타트 사진페스티벌 2008, Mathildenhohe, 다름슈타트, 독일

수상 및 기금
2012 기획프로젝트 기금, 서울문화재단, 한국
2010 퓨처 맵 프라이즈 파이널리스트, 176/Zabludowicz Collection &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영국
2010 브리티쉬 인스티튜션 어워드, 로얄 아카데미 오브 아트, 영국
2010 블롬버그 뉴 컨템포러리즈 쇼트리스트, 영국
2009-2010 아르코 영 아트 프론티어 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
2008 제30회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한국
2008 NAfT 젊은 예술가 기금, 서울문화재단, 한국
레지던시
2011. 3-2012. 3 컨스틀러하우스 베탄니엔(Künstlerhaus Bethanien), 베를린, 독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
2011. 3 스페이스 스튜디오, 알링톤 하우스(Space Studio at Arlington House), 런던, 영국 (LG패션 후원)
2010.11-2011.2 파리국제예술공동체 (Cit� Internationale des Arts), 파리, 프랑스

출판물
2010 최현주, <드라마와 뉴스>, «사진의 극과 극», 서울: 학교재, pp. 304~306; 308, 309
2009 강수미, <덧없는 이미지의 무대 — 김아영의 “삿갓”, 포토몽타주 작품들>, «한국미술의 원더풀 리얼리티 — 탐미와 위반, 29인의 성좌», 서울: 현실문화연구, pp. 156~163
2008 김아영, «이케메랄 이케메라», 서울: 미디어버스
소장
— 요아킴 파이바 컬렉션/뮤지움 오브 모던 아트 리우 데 자네이루(MAM), 브라질
—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 중앙일보

Ayoung Kim
(b.1979 in Seoul, South Korea)

Educat ion
2009-2010 M.A. Fine Art,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London, UK
2005-2007 B.A. (Honours) Photography, London College of Communication, London, UK (1st Class in Dissertation)
1997-2002 B.A. Visual Communication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Sol o Exhibit ions
2012 <i>Crossings</i> , 16 Bungee, Seoul, Korea
2012 <i>PH Express</i> ,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2010 <i>Minima Memoria</i> , Street Level, Glasgow, UK
2009 <i>Ephemera</i> , I-Myu Projects, London, UK
2008 <i>Ephemeral Ephemera</i> , Space VAVA, Seoul, Korea

Sel ect ed Group Exhibit ions
2012 <i>Art Spectrum 2012</i> , Leeum (Samsung Museum of Art), Seoul, Korea [forthcoming]
— <i>Korean Eye: Energy and Matter</i> , Fairmont Bab Al Bahr, Abu Dhabi, Arab Emirates
2011 <i>Korean Eye: Energy and Matter</i> , The National Assembly, Seoul, Korea; Museum of Arts and Design (MAD), New York, US
— <i>What Had Happened</i> , Doosan Gallery, Seoul, Korea
— <i>Fotografias</i> , Museum of Modern Art of Rio de Janeiro(MAM), Brazil
— <i>Future Map Prize</i> , 176/Zabludowicz Collection, London
2010 <i>New Photography in Korea</i> , Galerie Paris-Beijing, Paris, France
— <i>Summer Exhibition 2010</i> , Royal Academy of Arts, London, UK
— <i>Osannolik Digital Festival</i> in Kulturnatten, Växjö, Sweden
— <i>Ways of Seeing</i> (Part II), I-Myu Projects, London, UK
2009 <i>Seoul International Photography Festival</i> , Garden 5, Seoul, Korea
— <i>Korean Eye: Moon Generation</i> , Saatchi Gallery, London, UK
— <i>Aim High: Joong-Ang Fine Arts Prize Awarded Artists Show</i> , Hangaram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 <i>The Cinematic-Montage</i> ,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08 <i>Terror: Your Fear Is an External Object</i> , Menupont Galeria, Mucsarnok (Kunsthalle) Budapest, Budapest, Hungary

— <i>30th Joong-Ang Fine Arts Prize Selected Artists Show</i> , Hangaram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 <i>Lateral Thinkers - from the Mind to the Wall</i> in Darmstadt days of photography 2008, Mathildenhohe, Darmstadt, Germany

Sel ect ed Awards and Grant s
2012 <i>Project Grant</i> ,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2010 Finalist, <i>Future Map Prize</i> , 176/Zabludowicz Collection &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London, UK
2010 <i>The British Institution Award</i> , Royal Academy of Arts, UK
2010 Shortlisted, <i>Bloomberg New Contemporaries</i> , UK
2009-2010 <i>Young Art Frontier Grant</i> , Arts Council Korea, Korea
2008 2nd Prize, 30th <i>Joong-Ang Fine Arts Prize</i> , Korea
2008 <i>NArt</i> 2008 Gran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Residencies
Mar 2011-Mar 2012 Künstlerhaus Bethanien, Berlin, Germany (Supported by Arts Council Korea)
Mar 2011 Space Studio Residency at Arlington House, London, UK (Supported by LG Fashion)
Nov 2010-Feb 2011 Cit� Internationale des Arts, Paris, France

Books
2010 Choi, Hyunjoo, “Drama and News”, <i>Edge to Edge of Photography</i> , Seoul: Hakgojae, pp. 304~306; 308, 309
2009 Kang, Sumi, “Stages of Ephemeral Images: “Shortcut” of Ayoung Kim, The Photo Montage Works”, <i>The Wonderful Realities of Korean Contemporary Arts</i> , Seoul: Hyunsil Cultural Studies, pp.156~163
2008 Kim, Ayoung, <i>Ephemeral Ephemera</i> , Seoul: mediabus.

Col l ect ions
— The Joaquim Paiva Collection/ Museum of Modern Art of Rio de Janeiro, Brazil
— Art Ban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 Joong-Ang Daily, Korea

이 도록은 아래 전시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Crossings

김아영

2012. 6. 7 - 7. 8
16번지

기획
16번지

진행
황규진

디자인
홍은주·김형재

홍보
성은진
이현진

글
김아영

© 2012 16번지, 김아영

이 책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출판권은 16번지와 작가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This Catalogue is published by
16 Bungee and Ayoung Kim
to accompany the following
exhibition:

Crossings

Ayoung Kim

June 7 - July 8 2012
16 Bungee

Organized by
16 Bungee

Coordinated by
Kyu Jin Hwang

Designed by
Eunjoo Hong · Hyungjae Kim

PR by
EJ Sung
Hyunjin Lee

Text by
Ayoung Kim

Works © Ayoung Kim
Catalogue © 2012 16 Bungee
and Ayoung Kim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manner whatsoever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GALLERY MYUNGDAI
16 bungee





16 bungee

GALLERY HYUNDAI



Arts Council Korea

